



“시골학생들, 광주일보 통해 웃고 떠들며 지역과 소통”

나주 봉황중 조미옥 교사 전국 NIE 공모전 대상

“신문을 읽으면 세계가 보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잘 배달되지 않은 먼 단위의 시골 학생들이지만 광주일보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 중입니다.”
57년 전통의 광주일보를 교재로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수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미옥(여·47) 나주 봉황중 교사가 8일 ‘2009 신문사랑 NIE 공모전’ 교사·일반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조 교사는 한국신문협회가 실시한 공모전에서 광주일보 신문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소개한 ‘NIE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농어촌 소규모 통합교육 살리기’라는 주제의 보고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매주 두 차례 ‘방과 후 활동’ 시간에 2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수업을 진행했다. 신문은 언제나 광주일보를 이용한다.

그는 “지역 대표 신문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직업·환경·지역의 문제점 등을 학생들에게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며 광주일보를 교육에 활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소식을 대략적이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반면 광주일보에서는 균형있는 시각과 상세한 기획 보도로 지역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NIE수업은 쉽지 않았다. 먼 단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신문을

거의 접해보지 못해 ‘왜 신문을 읽어야 하는지’ ‘신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데’ 익숙한 학생들은 활자화 된 신문을 집중하며 ‘읽는 것’에 힘들어했다.
조 교사는 먼저 100여 부의 신문을 자신의 집으로 신청, 학교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1부씩 나눠줘 수업하는 열의를 보였다. 수업도 단순히 신문을 읽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 놀이 형식으로 진행했다. ‘NIE로 골든벨을 울려라’ ‘NIE로 퍼즐 맞추기’ ‘NIE 활동 후 페션신문

로 패션쇼하기’ 등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스스로 역사·경제 등 주제별 스크랩북을 만들어 신문을 오리고 붙여 개성있는 신문교과서를 만들었다. 신문 읽기에서부터 스스로 만화를 그려 경제상식을 익히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승려문 화재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소식 등을 표현했다. 학생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발표하고 토론한 결과 어휘력과 문장력은 물론 자신감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조 교사는 “앞으로도 아이들 내면에 잠재돼 있는 장점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자동차문화 “쩍...”

광주시민들이 올해 울산시민들보다 2배 이상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의 광주시 점유율은 현대차의 울산시 점유율보다 27% 이상 적었고, 광주시민들의 대형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① 외제차 많고 광주 733대 > 울산 299대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2009년 수입차 신규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광주에서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733대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5대 더 늘었다. 울산은 달랐다. 지난달까지 299대의 수입차가 신규 등록돼 광주의 절반에 못 미쳤다. 광주 인구가 142만, 울산은 111만인 것을 감안할 때 광주 시민의 수입차 선호도가 ‘유별나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울산은 수입차 관측 활동이 치열했던 지난달에도 42대만 신규 등록에 그쳐 광주의 97대와 대조를 보였다.

② 지역차 외면 기아차 광주 점유율 37% 울산 현대차는 무려 64%

지역 제품에 대한 애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광주시와 울산시, 기아차 등에 따르면 8월까지 광주의 기아차 점유율은 36.9%로 이 기간 모두 8천833대에 달했다.

③ 대형차 선호 2500cc 이상 증가율 최고

이런 가운데 광주시민들의 대형 승용차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시에 등록된 승용차 48만7천247대 가운데 2천500cc 이상 대형 승용차는 지난해 12월 4만6천946대에서 지난달 5만1천615대로 4천669대(9.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승용차 9대 중 1대는 대형차인 셈이다. 1천cc 미만 경차는 지난해 말(2만1천161대)보다 8.8%(1천867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지율기자 dok2000@



가을날의 동화 한로(寒露)인 8일 무등산 장봉재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억새와 구름 사이로 번져가는 파란 하늘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잘팔리는 ‘쏘울’ 증산 급하다”

송천권 기아차 광주공장장 노조에 혐의 축국

기아차 광주공장의 신개념 CUV인 쏘울의 질주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출 물량이 쏟아지는 등 증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조와의 협력이 지연되면서 공장 설비 증설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8면>
송천권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시장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울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생산설비를 늘려 증산을 하려고 하는데 노조와의 협력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밀려있는 수출 주문량이 2만대를 넘는 데다, 북미 2010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 더 팔 수 있는데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광주시 서구청에 공장 증축(연면적 7

천877㎡)허가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차기 노조지회장 선거 일정에 밀려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송 공장장은 “이달 안에 공장 증설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증산에 들어가야 물량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서 “노조가 하루빨리 협의에 응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포티지 후속 모델인 신차(프로젝트명 SL)를 이달 중에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생산한 뒤 내년 광주공장에서 3월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공장장은 “신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광주공장은 연간 40만대 규모를 갖춰 글로벌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

알림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12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광주일보는 농촌 경제와 교육, 언론, 문화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새로운 필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 ◆김배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위해성 평가체제 구축분야) 국가전문가 ▲OECD 세계농업전망모형(Aglink) 한국담당 ▲농림부, OECD 농업자문단 자문위원 ▲국립식물검역원 위생성평가(IRA) 자문위원
- ◆김성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일 뮌스터대학교 언론학 박사 ▲한국방송학회 ‘매체미학’ 연구회 회장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독일 바이로이트대학교 초빙교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이미란 전남대 국문과교수
▲1983년 광주일보,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꿈꾸는 노래 등 소설집 4권 출간 ▲광주문학상,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 ▲중국 푸단대학교 교환교수
-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광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자유실천문학인협의회 대표 ▲민주평화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제13대 국회의원 ▲한국작가회의 고문 ▲주요 시집 ‘겨울공화국’ ‘북치는 앉은뱅이’

This section contains a variety of advertisements and news snippets. The most prominent is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movie 'Jekyll and Hyde' (지킬 하이드) with a poster showing a man's face. Other smaller ads include 'Best of Best' (Best of Best), 'The Great Escape' (대탈출), and various local business notices and announcements.